

세계일보

부산서 '독립유공자 삼남매' 집안 나왔다

보훈청,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/ 박차정 의사 둘째 오빠도 인정

입력 2019-11-17 14:14:50, 수정 2019-11-17 19:59:03



왼쪽부터 박문희, 박문호, 박차정 선생.

순국선열의 날인 17일 부산에서 독립유공자 3명을 배출한 집안이 나왔다.

부산보훈청은 이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'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'에서 지역 여성 독립운동가인 박차정 의사의 둘째오빠인 고 박문호(1907~1934)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. 박 선생은 1928년 부산에서 동래청년동맹, 동래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고 이듬해 중국으로 건너가 비밀결사에 가입, 상해·천진·북평 일대에서 활동하다 체포돼 징역 1년6월을 받았다. 1933년 10월 비밀결사재건동맹사건으로 체포돼 취조를 받기도 했다.

박 선생이 서훈을 받으면서 이미 독립유공자인 여동생 박차정(1910~1944) 의사와 형 박문희(1901~1950) 선생에 이어 한 집안에서 세 번째 독립유공자가 나왔다.

부산 동래에서 태어난 이들 남매 중 막내인 박차정 의사가 1995년 가장 먼저 독립유공자가 됐다. 박차정 의사는 의열단장 김원봉의 아내로 항일 여성운동 단체인 근우회에 소속돼 중국 베이징을 오가며 항일투쟁을 하다가 일본군과 교전 중 다쳐 결국 그 후유증으로 숨졌다. 맏이인 박문희 선생도 지난해 11월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. 박문희 선생은 1925년 의열단 동래청년연맹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1929년 12월 신간회 상무위원으로 항일격문을 배포했다.

둘째 박문호 선생은 직계 후손이 없어 신청이 조금 더 늦어졌다. 박문희 선생의 자녀이자 박문호 선생 조카인 박의영 목사가 아버지에 이어 삼촌의 업적이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신청을

했다.

부산=전상후 기자 sanghu60@segye.com